

전남도, 올 한해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관광문화체육 새 제도·시책 소개... 14억원 확보 취약계층 여행 지원 등...도민 관광 기본권 실현

전남도는 올 한해 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청춘어람 육성,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 농업박물관 체험존 등 관광문화체육 분야 새 제도와 시책을 통해 도민 복지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관광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14억 원을 확보, 전남지역 관광지 1박

2일 여행비용 중 14만 원 이내로 여행사를 통해 지원한다.

대상은 전남 거주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및 장애인 등이며, 1만여 명을 선발한다. 사업 공고 후 거주지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들의 끼와 아이디어를 관광 분야에 펼치는 청춘어람 육성사업도 추진한

다.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청년이 직접 섬에 체류하면서 섬 전문가, 주민과 함께 섬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상품을 기획·등록하는 사업이다.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섬 스테이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10명 내외의 전남 섬 관광기획자를 선발한다. 기획자로 선발되면 우수사례 현장답사, 섬 2주 살아보기, 체험형 섬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2개월간 실무 인턴십 교육을 받는다. '청년이 만들어 가는 여촌 관광의 요람'이란 뜻이 담긴 이 사업을 통해 MZ세대를 겨냥한 젊은 감성의 체험형

섬 관광상품 개발이 기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127억 원의 사업비로 만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2만 8,000여 명이 증가한 12만 6,000여 명에게 연간 10만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2월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ARS 전화(1544-3412)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전남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1,400여 개로, 카드는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사용하거나, 온라인 가맹점

및 전화주문 서비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쓸 수 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도내 가맹 체육 시설 이용 시 1인당 최대 월 8만 5,000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구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등 만5~18세 유·청소년과 만19~64세의 장애인 약 3,500명이다. 누리집 또는 주민등록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전남도농업박물관은 10억 원을

들어 실감미디어 체험을 할 콘텐츠를 구축한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농업문화 실감 체험 플랫폼 '확장현실(XR) 헤리티지 팝'을 만들어, 누구나 무료로 체험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가상현실에서 농작물을 직접 심고 재배하는 '가상농장' ▲농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표현한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고 쌍방향 체험을 하는 미디어 월 ▲전시유물과 스토리텔링,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등을 즐긴다. 농경문화관과 쌀문화관에 설치하며,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 문화활동과 밀접하게 관련한 관광문화체육 분야 제도 및 시책을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민이 혜택을 보는 시책을 지속 발굴해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도, 지난해 화재 인명·재산 피해 감소

화재·구조·구급 현장활동 15만 2,386건

지난해 전남지역 화재·구급·구조 신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소방본부의 '2021년 소방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9만 6,328건의 신고를 접수해 19만 6,144건의 현장 활동을 했다.

신고접수는 2020년(57만 6,460건)보다 3.4%(1만 9,868건) 증가했다. 분야별 현장 활동 건수는 화재 2,473건, 구조 4만 1,285건, 구급 15만 2,386건이다.

화재는 1만 2,118건을 접수해 2,473건을 처리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21명·부상 65명 등 총 86명, 재산피해는 210억 4,8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 대비 화재 건수는 2,472건에서 2,473건으로 0.04% 증가했지만, 인명피해

는 120명에서 86명으로 28.3% 감소했다. 재산피해도 291억 7,100만원에서 210억 4,800만원으로 27.8% 줄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362건(55.0%)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554건(22.4%)·기계적 요인 265건(10.6%) 등이다.

구조(생활안전) 출동은 연간 4만 1,285건, 1일 평균 113건으로, 3,601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출동이 2만 5천 243건, 교통·승강기 사고 등 일반구조 출동이 1만 6,042건을 기록했다.

2020년 대비 구조활동은 3만 5,877건에서 4만 1,285건으로 15.1% 증가했지만, 인명구조는 4,278명에서 3,601명으로 15.8% 감소했다.

주요인은 여름철 폭염 등의 영향으로 벌집 제거 출동이 급증했고, 2020년 대비 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구조인원은 급감했다.

구급활동은 연간 15만 2,386건, 1일 평균 417건으로, 8만 3,566명의 환자를 응급처치 후 이송했다.

2020년 대비 구급활동은 13만 5,450건에서 15만 2,386건으로 12.5% 늘었다. 이송 인원도 7만 7,148명에서 8만 3,566명으로 8.3% 증가했다.

지난해 도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라 이상 반응 환자 이송이 출동 건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 통계 자료를 토대로 부주의 등에 대한 화재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소방대책을 세워 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오후 무안군 삼향면 남악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 방역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무안 코로나19 대응 현장 방문

유증상 시 즉시 검사 당부
"KF94 마스크 착용 생활화"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파력이 강한 신종 오미크론 변이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10일 무안군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발생한 무안지역 확진자는 73명으로 무안 전체 확진자(351명)의 21%를 차지하는 등 최근 급증추세다.

이에 도는 신속대응반을 투입하고 접촉자 분류, 전수검사 등 광범위한 역학 조사를 벌이며, 오미크론 변이 선별 검사도 함께하고 있다.

무안지역 주요 감염 경로는 학교시설, 가족·지인 모임, 타지역 접촉 등이다.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환기 미흡, 감기 오인에 따른 진단검사 미실시 등 기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국적인 오미크론 확산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잠시 멈춤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며 "중상이 의심되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타지역 방문과 사적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언제 어디서나 KF94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을 기울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NAVER *건강정보* *회원114* *로그인* *회원가입*

광주시, 지역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자 공모

광주시는 기업 ESG 경영 인식 개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역량 있는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으며 ESG 경영 확산에 대한 요구·인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보조사업자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업 ESG 경영과 관련한 유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및 조직·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사업내용은 ESG 경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기업진단 및 컨설팅 등이며, 경영이 주목받고 있으며 ESG 경영 확산에 대한 요구·인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손학한 시 기업육성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비대면 산업 발달 등으로 환경변화에 관심이 확대되고 안전·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을 강조하는 ESG경영이 수출 과정이나 금융 거래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가치로 평가받기 때문에 지역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시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지역 기업에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성있고 역량 있는 법인·단체가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도, 설 대비 농축특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오는 13~27일 제수·선물용품 대상...농관원 합동

전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판매업소다.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품목은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1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최소 인원으로 진행한다.

가벼운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원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축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된다"며 "집중적인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